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풍원종축



▲풍원종축 최중대 사장

가야산의 중턱 분지에 위치한 풍원종축은 찾아오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종돈장으로써는 최상의 적지임을 인정하게 한다.

해발 450m에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경남 함천에 자연을 득을 최대한 이용하여 설립된 풍원종축은 큰 바람이나 눈의 피해를 받지 않고, 항상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등 산 골짜기에 위치한 분지의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었다. 질병방역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최중대 사장의 신념속에 철저한 외부 질병 차단을 위해 사무실과 직원의 기숙사 또한 조그마한 등성이를 넘어선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의 사람들이 축사 근처로 가야할 일을 최대한 줄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양돈장 냄새가 전혀 안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산과 나무 냄새속에 묻힌 기숙사는 차라리 별장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계열 G.P 농장을 늘리는데 주력

풍원종축 최중대사장은 '81년부터 현재의 중

돈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축사 8동 5,000두 규모를 키우고 있

다. 5개 계열 GP농장을 가진 풍원종축은 전체돈군 모돈 3,000두 규모의 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풍원은 완벽한 품질관리로 육돈의 균일도가 높고, 다산성 및 연산성으로 경제수명이 길며, 출하일령 단축을 위한 빠른 성장, 육질 개선에 따른 높은 정육률을 가지지 위해 계속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1년에 100두 이상 원종을 도입하고 있으며, 아주 순수한 새 품종에 의해 비육돈을 생산하여 비육농장에서 잡종강세의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게 F1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이번이 새로이 당진에 모돈 1,200두 규모의 계열농장을 늘린 것을 비롯하여, 계열 G.P 농장을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풍원종축은 렌드레이스, 바크셔, 요크셔,

축산인이 진정한 축산인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며, 또한 축산 관련 관계기관에서 2000년대를 바라보는 긴 안목을 가진 정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듀록 4품종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균일도 높은 품질의 고정된 돼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타 농장에서 잘 실시하지 않는 글래서씨병 백신까지 접종하는 완벽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앞서 말한 자연적인 조건 외에도 산 아래 농장 입구에서부터 2개의 'TGE, PED 방역철저' 라는 플랜카드가 들어오는 이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으며, 질병차단을 위해 생석회를 차량통행로에 도포하고, 가성소다로 차량바퀴를 소독하고 있는 등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다.

타 농장에 비해 배에 가까운 15명이란 많은 인원이 철저한 개체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6세대의 직원 기숙사를 증축해 9세대가 지낼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풍원중축 최중대 사장(만40세)는 축산학과 대학은 나온 후 10여년의 농장생활을 한 후 지금의 풍원중축에 이르기까지 양돈으로 이어온 외길을 걷고 있다. 완벽한 방역으로 단 한번도 질병으로 인한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돼지 출하 생산성에서 계획을 어기지 않는 믿음이 주위에 인정받아 빠른시일에 급속성장을 이룩해 내었다고 그는 이야기 한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가축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선 가져야 합니다. 가축은 공산품이 아니



위/안개분무를 통해 소독과 함께 호흡기 질병을 방지하고 있다. 아래/풍원중축은 두 대의 트럭을 보유함으로써 출하와 운송문제를 완벽 해결하고 있다.

니까요. 그리고 축산인은 국민식생활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요"라고 양돈가로서의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취재 : 조진현> **養豚**